

히브리서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GOOD NEWS

히브리서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Hans-Jörg Ronsdorf

다 이루었다!

Tetelestai

요한복음 19:28-30

책 소개: 이 책은 히브리서를 제 말로 풀어 쓴 것, 곧 설명을 곁들여 다시 들려준 것입니다. 마치 이 편지를 짧고 간결하게 설명하거나 해석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생겨난 분량은 고전적인 성경 번역과 비교하면 단어 수로 약 세 배입니다.

이 풀어 쓴 글은 편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의 이 편지를 언제나 고전적인 성경 번역으로도 읽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 Einheitsübersetzung, Luther 번역, Elberfelder 번역이나 Schlachter 번역(독일어 성경 번역본) 같은 것입니다.

독일어판 제1판 2026년 1월, Albis 6½, 87477 Sulzberg, 독일어판 ISBN 978-3-9826027-0-7

주문, 질문, 연락: hj-ronsdorf@t-online.de

히브리서

이 특별한 편지는 신약성경¹의 다른 어떤 편지와도 견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 중간 형태)처럼 이 편지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서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편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제사 제도를 다루는 주석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는 새롭고 훨씬 더 나은 현실과 견주어 살펴봅니다. 메시아 예수를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역사와 예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수신자들 가운데는 예전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였을까? 그들은 때때로 그렇게 묻고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피 흘린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구원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최종적인 제사가 될 수 있었을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고대의 편지가 오늘 서구에 사는 우리에게 할 말이 있을까요? 특히 그 주제들이 히브리 성경, 이른바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천사, 광야, 언약, 피, 제사가 다루어진다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편지는 신약성경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편지가 로마서만큼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편지가 없다면 기독교 신앙에는 많은 것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1. 이후로는 ‘신약’으로 줄여 씁니다.

복음을 보는 유대인의 관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 몇몇은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전의 지성소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기록될 당시 성전이 아직 있었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성전, 제의, 예루살렘,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이 이 작은 민족과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족적 정체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몇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은 이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편에 서는 것은 삶을 쉽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차별과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드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더 이상 유대 민족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확신과 새로운 정체성과 그들의 메시아는 순전히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미 몇 해째 이어지던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옛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면 삶은 다시 쉬워지고, 종교는 익숙한 것이 되고, 유대 민족은 다시 그들의 고향이 되고, 그들은 다시 회당의 일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건디고 끝까지 버티라고 격려합니다. 이 편지는 하늘의 예배와 하늘의 도성이, 아니 새 언약 전체가 얼마나 더 낮고 위대한지를 보여 줍니다. 이 편지는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에 대해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 뒤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수신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싸웁니다. 많은 비교로, 역사에 대한 회상으로, 그리고 새 언약의 복과 풍성함을 비할 데 없이 그려 냄으로써.

오늘은 어떨까요? 탈기독교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낯선 사람(stranger), 나그네입니다. 세상에 맞추지 않으면,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고백하기가 꽤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편지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서구 사회에서 시의성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과 주제

유대인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역사와 의식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인 우리를 위해, 이 편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들에 대해 몇 가지 도입이 되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천사

편지의 처음, 첫 두 장에서 예수는 여러 번 천사들과 비교됩니다. 저자는 그분이 어떤 천사보다도 크시다는 것을 인상적으로 보여 주려 합니다. 그분은 천사들처럼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에도. 곧 죽을 수 있는 몸이 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을 때에도. 천사들은 “능력이 있는 자들”이며,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영들이어서, 살과 피로 된 우리 사람들처럼 물질과 죽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시고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셔서 천사들 위로 높이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분은 이제 천사들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 오른편의 지위와 자리를 얻으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실 그 영예로운 자리를 그분은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천사들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도록, 찾아 읽으면 도움이 되는 성경 본문 몇 가지를 예로 듭니다. 히브리 성경, 곧 구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요? 하늘의 만군은 모든 천사적 존재의 총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행합니다. 천사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고, 이름과 계급과 직무도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길지, 그분에게서 돌아설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바벨의 언어 혼란 뒤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민족들을 맡기셨지만, 그들은 맡은 일을 다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했으며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다.

신명기 32:8-9 (창세기 11:1-9); 시편 82:6-7; 창세기 6:1-3.

열왕기상 22:19-23; 욥기 1-2장.

시편 148:1-5; 욥기 38:4-7; 이사야 14:12; 느헤미야 9:6; 다니엘 4:13-23; 7:9-10; 8:16; 9:21; 10:13, 21; 12:1; 창세기 1:26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주위에 있는 하늘 회의입니다).

예수와 천사들을 이런 형태로 비교하는 것은 신약에서 유일하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었는지 묻게 됩니다.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크시거나 높으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대인 독자들의 처지가 되어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는 어떤 면에서 새로운 소식이었고, 예수가 완전히 거부당하던 그들의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그들의 세계관에 말을 걸고, 그로써 성경의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현실은 오늘날 어디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실재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자이시지만, 바벨탑 사건 뒤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천사들을 민족들에게 나누어 맡기셔서, 그들을 이끌고 공의와 정의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사명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고, 그것을 자기 이익과 자기 승배를 위해 남용했습니다(시편 82편). 그래서 장차 올 세상, 곧 새로워질 세상은 더 이상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하나님은 메시아 왕이신 예수를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구속받은 우리 사람들을 그분 곁에 두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자 하나가 마귀입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역하여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사람의 원수요 살인자가 되었지만, 메시아와 그분의 죽음으로 패배했습니다(2:14).

처음 두 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죄인인 우리가 메시아의 죽음으로 해방되어 이제 메시아의 동료, 곧 친구가 되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장차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크고 영광스러우실 뿐만이 아닙니다. 메시아 왕과 연합한 우리도 천사들 위에 세워지고, 그들의 특권적인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족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레위 제사 제도의 핵심 인물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과 그 아들들의 아들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는 참되고 더 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해석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는 특별한 옷을 입었고, 눈에 띄는 흉패를 달았는데,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룬 12지파를 나타냈습니다.



편지의 맨 처음부터 예수께서 이루신 큰 일이 언급되는데, 그 일이 그분을 마땅히 이 비할 데 없는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1:3)**. 죄와 범법과 제의적 부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갈라놓고 그분과의 교제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정결은 편지가 진행되면서 영광스러운 복음 소식의 일부로서 깊이 다루어지고 그 근거가 제시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이 우리에게 구속이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2:3, 10; 5:9; 7:25; 9:28). 그리고 종살이에서 벗어나(2:15) 장차 올 영광으로 나아가는 해방이라고(2:10). **구원은 성전 제사의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끔찍하게 잔혹하고 피투성이인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2:9; 13:12).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의 결과는 여러 가지 말로 묘사됩니다.

영원한 속량(해방, 9:12, 15), **용서**(9:22; 10:18), 죄를 **없애심 / 제거하심**(폐하심 9:26), **속죄**(죄를 속하심, 2:17), **거룩하게 하심**(거룩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2:11; 10:10, 14, 29; 13:12), **깨끗하게 하심**(1:3; 9:14, 22; 10:2, 참조 10:22).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제물이시기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분은 첫째, 곧 옛 제사 제도와 언약 제도를 끝내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시고, 그분의 제사는 단 한 번이며, 죄를 없애고 치워 버릴 만큼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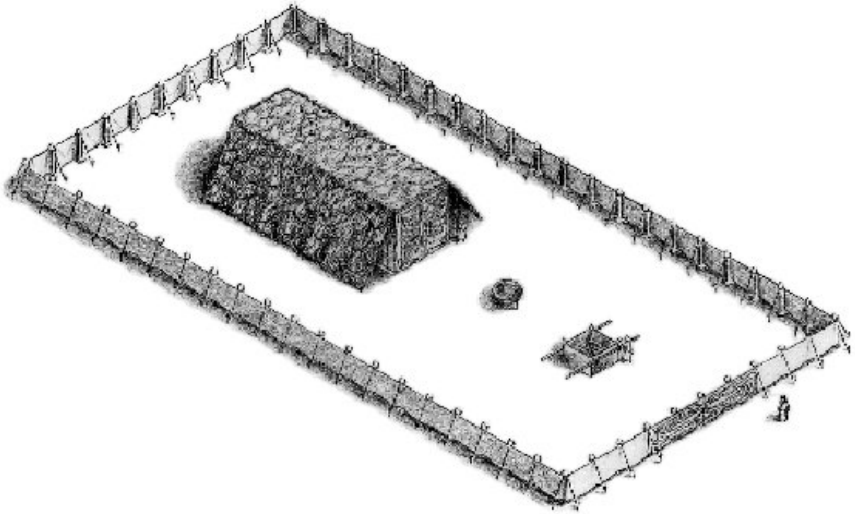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나서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와 찬양의 영적 제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내산, 이동식 성전, 광야 여정

이집트 땅에서 해방되어 이른바 출애굽으로 나온 백성은 시내산에서 꼬박 1년을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 백성이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셨고, 여기서 그들에게 그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예를 들어 출애굽기 19장과 20장).

회막이라고도 불린 이동식 성전은 장막 성소였습니다. 그것은 뜰로 둘러싸여, 곧 감싸여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의 구름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왕이요 그분 백성의 왕으로서, 그분의 보좌라 불리는 언약궤 위에 좌정하셨습니다.



장막 앞에는 큰 제단과 큰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제의적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배치는 같았고, 다만 더 컸을 뿐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장막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재료는 백성이 바쳤고, 많은 재능 있는 장인들이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멜기세덱

이스라엘의 시조,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난데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창세기 14장). 그는 이스라엘의 모세적, 레위적 제사장직이 있기 훨씬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살렘, 곧 다윗의 도성이 되기 전의 예루살렘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이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을 편지의 저자는 활용합니다. 시편 110편을 따라서입니다. 그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아주 오래된 왕이자 제사장은 예수를

가리키는 궁극적인 예표가 됩니다. 예수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레위 지파나 아론의 집안이 아니라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 출신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지속되고 이전의 서열을 대신하는 이 새로운 제사장 서열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영원히 참된 왕이자 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그분의 제사장 직무는 완성에 이르게 했습니다.

새 언약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해방하신 그분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결합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혼인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에는 의무가 있었고, 그것은 십계명과 그 밖의 계명들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첫째 계명을 어기고 우상, 곧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도, 인간 자체도, 이 계명들을 언제나 모두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더 이상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지 않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중보자, 곧 중재자가 되시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공통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이스라엘의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오로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약속에 묶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확약과 약속에 닿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루도록 그 앞에 내밀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율법은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죄 문제는 새 언약에서 용서로 단번에 해결됩니다(8-10장).

이 편지가 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민족들인 우리도 이 언약 안에 세워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 곧 이른바 성찬에서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이것을 정기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새 언약을 버리거나 거부하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요 퇴보일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성전 제의의 제사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주는 거리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의미가 보이지 않았고, 어쩌면 그들이 제사 제도에서 알던 정결하게 하고 구속하는 논리가 아쉬웠을까요?

복음의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땅 위의 삶, 피 흘린 십자가 죽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이 들리심은 포괄적인 구원의 효력과 의미를 지닙니다.** 그 대조이자 예표는 옛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비를 통해 풀이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그리는 새롭고 더 나은 세상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제의 전통에 대한 창조적인 종합이자 대립입니다. 21세기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아득히 멀고 우리 문화에 낯섭니다. 그러나 1세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친숙하고 큰 주제였으며, 그들에게는 많은 것이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죄는, 당시의 제의적 부정과 마찬가지로,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려면 언제나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잘못이나 범법이 있을 때 드려야 하는 동물 제사가 있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든, 온 백성을 위해서든. 그러나 - 이것은 꼭 짊어 두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 의식적으로나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 예를 들어 우상 숭배, 간음, 살인, 자녀를 제물로 바친 사람은 제사로 정결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씻는 제사가 없는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의적인 죄에는 사형이 따랐습니다. 이 본질적인 제한이 새 언약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동물 제물의 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혼, 곧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속죄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는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변화를 가져온 것은 흘린 피의 이 생명을 주는 힘이었지 - 동물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참조 레위기 17:11).** 흠 없는 동물의 생명은 죄인의 결함 있는 생명을 회복하는 힘을 구현했습니다. 동물의 죽음이 없으면 속죄를 위한 피가 없었습니다.

속죄는 문자 그대로 “덮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죄는 제물의 (완전하고 깨끗한) 생명으로 덮입니다. 갈라놓던 잘못이 덮이고 나면 장벽이 치워지고,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길이 열립니다.

어떤 제물은 제단 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불살라졌습니다. **불살라짐으로써 동물 제물은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건너갔습니다. 불은 때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그러나 제사 제도에서는 결코 진노가 아니라 속죄, 곧 죄를 덮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야기됩니다.** 제물의 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이것이 죄와 범법을 속하는 것, 곧 속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대신 형벌을 받는 제물이나 보상을 치르는 제물(만족 제물)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이 제물이 필요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범법과 제의적 부정에서 벗어나고 깨끗해지려면 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동물 제사가 안타깝게도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효력 있는 정결은 이를 수 없었습니다. 이 많은 제사는 말없이 마지막 한 제사를 가리켰지만, 그 제사는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히브리서가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폭력적인 죽음(영어 victim)을 그분의 완전하고 자발적인 자기 헌신(영어 sacrifice)으로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죽어 가시고 죽으신 메시아의 피, 그분의 생명과 몸을 내어 주심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구원 사역의 정점입니다.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 그것은 우리 죄 문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구원의 논리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든 - 이것이 사람들과 온 우주를 위한 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죄도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덮이고, 치워집니다.

그분의 죄 없고 거룩한, 내어 주신 생명이 그토록 큰 가치가 있기에, 베드로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말하며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이 피는 모든 죄를 속하고 영원히 없앨 수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비둘기, 양, 염소, 숫양 같은 작은 가축이나 소/황소)는 사람이 자기 소유에서 가져와 드렸습니다. 사람의 죄를 씻으려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물로 드린 동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물을 주시는 분이며, 범법자를 위한 제물도, 따라서 구원도 주시는 분입니다.

9장과 10장은 예수의 제사를 중심 주제로 다룹니다. 예수의 죽음 뒤에 돌아보면 옛 제사 제도가 완성에 이르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 제도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느 거룩한 곳과 관련하여 죄와 제의적 더러움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 그것은 그분의 죄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생명을 나타냅니다 - 우리를 온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성전에서 드리는 엄숙한 제사 의식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해도, **하나님께는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 주신 아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완전한 제사입니다.**

시편 기자와 선지자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사실 동물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더더욱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 그분의 거룩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 그분의 자발적인 순교의 죽음, 이 모두가 하나로 합쳐져 죄를 말 그대로 없애 버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 피는 의식적으로, 고의로, 손을 높이 들고 지은 죄에서도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본질적이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해당된다면, 그것이 민족들인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루신 모든 것, 옛 제사 제도에서 그분을 가리키던 모든 것이 비유대인인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유대인의 메시아를 믿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 특별한 편지를 관심을 가지고 대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대목은 이해하기 어렵다 해도.

큰 화목의 날, 곧 속죄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축제 가운데 유독 두드러지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9장과 10장에서 이날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세속 국가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가장 큰 절기, 욥 키푸르(JOM KIPPUR)입니다. 물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이.

실제 이름인 욥 하키푸림(JOM HAKIPPURIM)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요 한 해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독일어로는 “화목의 날”(Tag der Versöhnung)이라고 부릅니다. 키푸르(KIPPUR)라는 말은 히브리어 어근 “K-P-R”에서 나왔으며 그 의미가 복합적입니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바르다, 덮다, 속죄하다, 죄를 속하다, 죄를 씻다, 물리치다**. 또 이 어근은 카포렛(KAPPORETH)이라는 말에도 들어 있는데, 이것이 언약궤의 덮개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곳이 속죄의 자리입니다. 이 금으로 된 덮개 위와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 구름 가운데 좌정하셔서 이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 가문과 온 백성이 성소 안에서, 성소 곁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한 해마다의 “새 출발”, “리셋”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오염시킨 제의적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왕이신 분은 거룩하신 분이며, 장막 성소(나중에는 성전)에 있는 그분의 보좌와 거처는 모든 더러움에서 지켜지거나 깨끗해져야 했습니다. 이 더러움은 의식적인 죄가 아니라 제의적인, 흔히 의식하지 못한 접촉이었습니다.

이름이 말해 주듯이, 이날 제물의 피로 죄가 덮이고, 제사장들과 온 백성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이 “죄 씻음”은 회개, 곧 돌이킴과 죄의 고백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순전한 제사 의식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제사와 다른 두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이 의식에서는 두 번) 언약궤가 있는 가장 안쪽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제물의 피를 언약궤, 곧 속죄소(로마서 3:25) 앞과 위에 뿌렸습니다.

백성을 위한 제물은 숫염소 두 마리였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피는 가장 안쪽 성소로 가져갔습니다. 다른 숫염소는 산 채로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염소 위에 손을 얹고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말하여, 그 죄가 상징적으로 그 짐승에게 옮겨지게 한 뒤였습니다. 그 짐승은 광야로, 죽음의 자리로, 죄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백성의 죄는 제거되고 치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의식 전에 이미 금식했던 백성은 죄를 고백하고 제사가 드려진 뒤에 일종의 사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년 동안만 유효했습니다. 그 의식은 해마다 되풀이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졌으며, 다시는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가운데 단지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이거나 실재의 그림자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실재이고 유효하며 영원히 서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와 함께 절대적인 하나님의 실재가 이 참 사람의 삶과 죽음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 전체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믿음

한 장 전체가 믿음과 신뢰를 다룹니다. 교리 명제로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옛 조상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적 인물들, 곧 믿음의 영웅들이 그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자신이 가장 크면서도 삶에 가장 가까운 본보기이십니다. 메시아께서도 시련과 시험과 믿음 없이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소 없이, 눈에 보이는 도성 없이, 그리고 유대인이 자기 민족과 하나라는 소속감 없이 사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의 형제자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뿐입니다.

믿음 안에서 견디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소망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마음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거듭거듭 깨닫고 눈앞에 그려 보는 것, 그렇게 영적인 성숙으로 자라 가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1장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히브리 사람들이여, 돌아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역사는 살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상 깊은 방식으로.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분명하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주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없던 방식으로. 그것은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이었지만, 신적으로 완전한 – 그래서 결정적인 –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그분, 영원하시고 사람이 되신 아들만이 이 말씀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크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자신이 그 소식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위해.**

그분은 참으로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예로부터 그분의 것이었지만, 인자로서도 머지않아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들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위임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하시는지에서, 그분은 하나님 영광의 완전한 광채요 그 빛남이십니다. 이해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예수의 땅 위의, 몸을 입은 현실과 임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게, 경험할 수 있게, 손에 잡히게.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조각조각, 조금씩만 알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히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소식을 확증하는 인장 자국과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안에서 오신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게 된 예수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하실 것입니다.**

아들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어 살기도 합니다. 탯줄에 매여 있듯이. 모든 것은 오직 그분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와 공간과 시간의 균형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영광스러운 목표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절실히 필요했던 우리 죄의 정결을 위해 그분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하고 비할 데 없이 완전한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자로서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위엄의 오른편입니다. 하늘 세계에 있는 그분의 영원한 보좌 위입니다.

예수와 천사들

천사들은 힘과 영향력에서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 예수께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이 이름은 그분 자신을 나타냅니다. 아들을.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이 이름으로 그분은 모든 천사를 뛰어넘으십니다. 결코 예수를 강력한 천사와 같은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아들에 대한 선지자들과 시편의 증언

저는 시편과 선지자의 말씀에서 가져온 일곱 인용으로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더 뛰어난 지위와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에게, 시편 2편에서 메시아 왕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 곧 아들은 시작이 없으셨고 창조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비할 데 없는 방식으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여호와와 헤아릴 수 없는 성육신, 곧 사람 되심으로서.

또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이 두 말씀은 그 예언적인

넓이와 깊이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들은 그분의 사람 되심을 가리킵니다. 또 그분의 부활과 우주의 왕으로 높이 들리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아들 예수를 하늘 보좌에서 다시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이 사는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만 그것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천사가 이 사건 때에 그들의 경외와 경탄을 드러내며 그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분께 존귀와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 그러했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편 104편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아 보낸다. 그들은 내 종들이며, 나는 그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천사들처럼 지음을 받아 빚어지고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 곧 맏아들은 결코 시작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45편의 말씀으로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굳게 서 있고, 모든 것 위에,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습니다. 흠, 곧 주의 통치의 지팡이는 의입니다. 주의 왕적 통치는 의롭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불법을 그 누구보다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즐거움과 환호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분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천사도 아닙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동료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편 102편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태초에 우주를 지으셨으니, 그것은 주의 능하신 손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질 것이나, 주는 남아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낡고 썩습니다. 해진 외투가 말려 바뀌듯이. 우주는 부서지지 않도록 변화되고 바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통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주는 같으신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 연대가 끝나지 않으시는 분, 결코 새로워질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에게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곁 보좌에 앉으라. 그리고 확신하라. 네가 네 모든 원수를 발판 삼아 그 위에 네 발을 올려놓을 날이 온다”? **그분이 영예의 자리를 얻으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지음 받은 영적 존재이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섬기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온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돕고 곁에 서 주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땅에 이끌려 들어오실 때 시작될 그분의 영원한 왕적 통치를 향해 험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향해. 거기서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상속하고 받습니다.

천사들은 이미 여러 번 믿는 사람들을 섬겼고,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께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2장

아들의 말씀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라

우리는 이 큰 구원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있으므로, 복음에서 들은 것에 더욱, 더 정확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한 항구에 이르지 못하는 배처럼 될 것입니다. 목표를 지나쳐 미끄러져 갈 것입니다. 믿음에서 파선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우리 히브리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이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의 하늘 회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의로운 보응이 있습니다 -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에 따라. **그런데 우리가 아들을 통해 선물로 받은 큰 구원, 그 건지심을 가볍게 여겨 지나치거나 위태롭게 하거나, 아니 무시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우리 주 예수를 통해 와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뒤에,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 곧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증인들에게 이루어진 이 큰 구원을 어디서나 전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도 확증해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적으로 이 소식을 확증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또 비범한 능력의 역사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믿어진 곳, 또 선포되고 믿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과 그분 나라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 사건들은 이 소식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마지막 선지자이셨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천사들

천사들에 대해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땅을 천사들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람의 다스림 아래 두셨습니다. 장차 올 세상도 그분은 천사들에게 맡기거나 상속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 - 엘로힘, 곧 **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 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그의 자손에게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들은 이 부르심에 걸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와 달리, 사람이 되신 아들에게는 이것이 완전하게 들어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곧 메시아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분 아래 두셨다면, 그분 아래 두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입니다. 비할 데 없고 견줄 데 없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 곧 아들께서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은 아직** 예수의 이 우주적인 왕적 통치를 그 상상할 수 없는 크기대로 보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때가 옵니다. 그분의 때가 이르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미 믿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알아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땅 위의 삶에서 약함과 가난 가운데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위해 죽음을 겪으셨고, 폭력적인 십자가 죽음의 온갖 쓴맛을 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 피조 세계에 미치도록. 그리고 그분이 불가능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둘러싸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의 승리의 관을 쓰셨습니다.

아들을 통한 큰 구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는 일입니다 - 만물이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 그분, 곧 메시아 예수를 땅 위에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에 온전히 합당하게 하시고,

그분의 하늘 직분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섬김에 온전히 합당하게 하시는 것이. 이 섬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큰 구원, 그 건지심을 이루신 분은 천사가 아니라 아들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그분, 예수는 우리 구원의 창시자요, 인도자요, 그렇습니다, 선장이십니다. 이 강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많은 아들과 딸인 우리를, 전에는 우리에게 달혀 있던 하늘의 영광으로 막을 수 없이, 승리 가운데 이끄십니다.** 그분이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안식으로 이끌어 내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입니다.

아들과 우리와 천사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아들을 땅 위에 사람으로 나게 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의 아들과 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께서는 사람으로서 사람보다 강하고 죽지 않아 사람보다 뛰어난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 사람들을 그분의 형제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들, 곧 엘로힘의 하늘 회의 가운데서 그분은 시편 22편이 말하듯이 거리낌 없이 고백하십니다. “오 하나님,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 형제자매에게** 전하겠습니다. 천사들의 하늘 회의와 구속받은 이들 가운데서 주께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이 새 가족을 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해 보라고. 그분은 누구보다도 그분의 하나님을 신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처형에서 구해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이 끔찍한 죽음이 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사야 8장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형제자매로 주신 자녀들이다.**” 메시아께서는 그분의 크고, 그렇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인간 가족인 우리 모두를 천사 세계의 하늘 회의에 소개하십니다. **구원이 필요하고 약하고 물질적으로 덧없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대신, 그분은 정반대로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하나로 묶여 있음을 선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피를 나눈 친족 관계와 깊은 결속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영원부터 아들이신 그분이 온전히, 완전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간적이고 죽을 존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무엇이든 그분도 그것이 되셨습니다. 죄만 빼고. 그분이 증명하셨듯이, 그분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까지 우리와 같아지셨지만,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순종과 헌신이 그분의 죽음을 뜻했습니다.

죽음, 마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우리 사람들은 날마다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시려고 오셨습니다. 죽음은 마귀에게 유리한 패가 됩니다. 마귀는 죽음을 좋아합니다. 죽음이 꼼짝없이 넘겨진 사람을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두려움의 권세를 꺾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마귀를 그 자신의 무기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율법 아래에서, 평생 양심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던 모든 사람을 해방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어두운 권세는 꺾였습니다. 거룩하고 죄 없는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밤 속으로 뚫고 들어가 죽음의 나라를 약탈하고 그것을 자기 나라로 삼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는다고 해도, 죽음은 우리에게 그 소망 없고 음침한 얼굴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은 우리를 하늘 세계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선장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그에게서 그의 권세와 무기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분 안에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일찍이 없던 대제사장

그분이 마음에 두신 것은 천사들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여, 그분은 씨,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보십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그 복이 민족들에게도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서 - 물론 죄는 빼고 - 그분의 형제자매와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해서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자비롭고 공감하며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 죄를 속하시고 없애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 예수의 예표로서 -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성취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의 은혜로운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하게, 단번에.**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위해 계속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나서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막으려는 시험과 박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그분은 몸소 겪고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겪을 것보다 더 강렬하게. 제가 이미 말했듯이, 그것이 그분을 이 대제사장의 섬김에 합당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공감하고 돕고 우리 곁에 서 계실 수 있도록. 그분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에게 일어난 일을 겪고 견디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그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3장

그러므로 모든 성도 여러분, 구속받은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지를. 여러분을 위해.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도이십니다. 우리의 고백, 곧 이웃이 우리에게서 보는 증언은 그분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그분이 그 내용이요 소식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요 참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 그분의 하늘 성소로.

예수와 모세

예수께서는 그분을 이 섬김과 직분에 세우신 분께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 모세가 그의 온 집, 곧 옛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가 지은 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습니다. 물론 모든 집은 누군가가 짓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 모세와 그의 집까지도 -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 집에서 그의 섬김에 신실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선포된 것을 가리키는 예표요 증언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집 **위에** 계십니다. 모세와는 다릅니다. 모세는 이 집 **안에서**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으셨고 그분께 속한 집,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의 가족,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기쁜 확신과 소망을 **굳게 붙들 때에만** -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까지 굳게 설 때에만 - 그 집이며, 그 집으로 납니다. 또는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오심까지.

광야에서의 원망

성령께서 시편 95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거든,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격노하게 하던 때에 그러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 나의 신실함과 돌봄을 보았으면서도 나를 도발하고 의심하며 떠보아 나를 시험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대에게 노했다. 나는 말했다. 그들은 늘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들은 나의 선한 길을 결코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거룩한 진노 가운데 맹세했다. 이집트를 떠난 이 세대는 나의 안식,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 아무도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십시오. 불신으로 가득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과 메시아에게서 떨어져 나가려는 마음을. 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알게 되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태롭고 시련 많은 때에 날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눈이 멀어 불신으로 꾀임을 받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버리면 안식을 찾으리라고 믿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동료, 메시아 예수의 참된 형제자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단호하게 계속 걸어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새롭게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모든 것을 참되고 실제적인 것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굳게 붙들 때에만. 그리고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에만. 하나님의 안식을 향한 여정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오늘, 아니 언제든지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그때 격노하게 하던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도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40년 동안? 죄를 짓고 그 시체가 광야에 남겨진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분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바로 불순종하고 그분을 향해 마음을 완고하게 한 사람들에게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4장

하나님의 안식, 그때와 지금과 장래

히브리 사람들이여, 그리고 이 편지를 듣고 읽는 모든 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에 정말로 이르도록 진지하게 마음을 쏟시다! 여러분은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올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을 통해 그들에게 풍요로운 땅 가나안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그러나 가나안이 비옥하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고 들어가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늘의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거듭거듭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직 안식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의 창조의 일들은 처음에 이미 완성되었는데도. 그러므로 그들은 믿었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곧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는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신뢰하기만 하면 안식에 들어가리라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좋은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은 불순종 때문에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 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새로운 은혜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 새로운 “오늘”을. 앞에서 이미 인용했듯이, 그분은 다윗을 통해 시편 95편에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모세의 후계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 세대를 최종적인 안식으로 이끌었다면, 그분은 지금 다른 안식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장차 올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창조의 일곱째 날, 곧 안식일도,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안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를 통해,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안식일의 안식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안식일의 안식, 이 하나님의 평화에 들어간 사람은 - 하나님 자신처럼 - 자기 일을 마치고 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갑시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때 그 사람들처럼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날마다 짓는 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놓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리십시오.

살아 있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 있으며,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날 칼날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삶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의 세계와 태도를 판단하고 드러냅니다. 이 칼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혼과 영을 갈라놓습니다. 뼈와 골수를 가르듯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 위험을 알아차리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 아니면 그냥 피해 갈 수 있습니다.**

큰 창조 세계 안에 창조주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도망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모든 생각과 모든 동기를 아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께 책임이 있으며, 언젠가 그분께 셈을 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본성과 실재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게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안심하고 담대하게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 이스라엘처럼 -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 방식의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들을 지나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까지! 하늘의 영원한 성소 안으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 우리의 피곤함과 지침, 또 의심과 체념까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느끼십니다. 그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사신 평생 모든 일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은 시련을 겪으셨고 시험대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끔찍한 고통을 거부하고 십자가 없는 쉬운 길을 택하라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굳게 서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죄와 불신에 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실재 속에서 그 보좌는 우리에게서 한 걸음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제자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거리낌 없이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하늘 보좌 앞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을 펼쳐 놓읍시다. 감사합시다. 경배합시다. 거기 은혜의 보좌 앞에서 -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 시간을 보냅시다. 쉼을 얻고 - 그분의 평안을 찾읍시다. 그분께 귀 기울읍시다.

그분의 보좌는 심판과 고발의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환영받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긍휼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간구와 탄원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대로. 그러나 그분의 때에. 꼭 맞는 때에! 결코 늦지 않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5장

아론, 그리스도, 그리고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 나섭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예물과 희생 제물을 제단에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 그 자신이 무지한 사람들과 길 잃은 사람들, 곧 죄를 지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이해합니다. 그 자신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전혀 다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정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 일로 부르신 분입니다. 처음에 아론이 그러했듯이. 그리스도에 대해 시편 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110편에서 그분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론과 같지 않고, 멜기세덱과 같다.**”

그분의 땅 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무엇이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합당하게 했습니까? 아론에게 없던 무엇이 그분에게 있었습니까? 그분의 삶은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드리는 간구와 탄원으로. 예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분의 하나님께 탄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고난이 그만큼 깊고 무겁게 그분을 덮었습니다. 그분은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오직 그분께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아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셨는데도 그러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기 전에 그분은 이런 순종을 모르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고난과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이 도전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목표에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온전해지셨습니다. 이 거룩한 삶과 죽음에서 비할 데 없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대적들에게 그분은

십자가 처형의 빌미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계기요 근거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방식으로 최종적이고 영원하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이 바로 이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른 제사장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엄숙하게 맞아들이시고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그분을 맞으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이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분이 늘 원하시던 이 제사장을 이제 마침내 얻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 제사장과 함께, 이 제사장이 그분의 피로 이루신 영원한 구원도 마침내 얻으셨다는 것을!**

성숙과 미성숙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설명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둔하고 듣는 것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알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에 교사가 될 수 있었고, 또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ABC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입니다.** 그것도 처음 듣는 것처럼 기초부터. 여러분에게는 제대로 된 음식 대신 어린 아기처럼 젖을 주어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해 아직 젖을 받아먹는 사람은 모두 경험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참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는 **믿음 안에서 장성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익숙해서, 그래서 선과 악, 그릇된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하는데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거절 속에서도 어떻게,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지를 압니다.

6장

그래도 저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 초등학교 신입생의 구구단처럼.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장성해야 합니다. 저는 옳고 중요한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메시아를 알기 전에도 이미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통해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온 풍성함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유대인 동족 앞에서, 그들도 믿는 이 오래되고 익숙한 것들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저 그들의 반대를 피하고 비켜 가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제는 어떤 기초 교리들도 한번 뒤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행실과 쓸모없는 의식에서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씻음이나 안수에 관한 가르침; 또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가르침.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를 주시면 이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이루신 일과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알고 굳게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아에게서 떨어져 나감과 그 결과

안타깝게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에서 다시 떨어져 나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빛을 받았고, 메시아를 알았으며, 성령이라는 하늘의 선물을 구체적으로 경험했고, 아니 맛보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이해했는데도. 그들은 장차 올 하나님의 새 세상의 기적들을 보고 함께 경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 그때 예루살렘에서처럼 - 메시아를 자기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 이웃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자기들의 믿음을 수치에 내맡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버리고 율법 아래의 삶과 죽은 행실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자유와 은혜를 다시 찾는 것이 그야말로 불가능합니다.

채소, 가시와 엉겅퀴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삶을 잘 보여 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밭은 자주 비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해와 비 덕분에 싹모 있고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냅니다. 그러나 같은 밭이 비가 와도 가시와 엉겅퀴만 자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상처를 입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가시와 엉겅퀴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종의 저주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불태워집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말하자면 이 밭과 같습니다. 그가 경험한 복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한때 맺었을 좋은 열매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잡초만 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대한 확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일부러 이렇게 오해의 여지 없이 엄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서는 좋은 열매를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불의하셔서, 여러분이 그분과 성도들을 위해 한 일을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 곧 메시아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실과, 그분과 성도들을 위한 여러분의 섬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런 부지런함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확신과,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게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맹세와 약속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크게 복을 주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 모든 것이 그것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토록 오래

걸렸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이를 두고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맹세나 서약은 모든 반론의 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상속자들 -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 에게 자기 자신을 건 맹세로 그분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증명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두 가지 - 곧 그분의 맹세와 약속 - 를 통해,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리라는 강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우리의 메시아께 피난처를 구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앞에 놓인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 소망은 바람에 그치는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전하고 든든한 닻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 하늘과 이어져 있습니다. 소망의 닻은 우리 안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쪽의 하늘 성소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으로서. 언젠가 우리는 그곳으로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7장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그는 살렘, 곧 훗날의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그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이자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끌고 간 왕들을 이기고 돌아올 때 그를 맞으러 나와 그를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번역하면 “의의 왕”입니다. 살렘이라는 도성은 평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제사장이 될 자격을 보여 줄 족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합니다.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훌륭한 예표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우리는 그의 생애의 시작도 끝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그러하십니다. 멜기세덱처럼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퍼센트까지 바친 이 왕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레위의 자손인 제사장들도 율법에 따라 그들의 형제, 곧 동족에게서 생활비로 10퍼센트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둘 다, 곧 레위와 백성이 아브라함에게서 났고, 그래서 모두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친척도 아닌데 그에게서 10퍼센트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 제가 이미 말했듯이 -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 멜기세덱을 높인 것입니다!

레위인들, 곧 죽을 사람들이 10퍼센트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 십일조를 받는 사람인 - 레위까지도 그것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셈입니다.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을 위해 멜기세덱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꼭 필요합니까? 죄의 용서와 온전함과, 모든 사람이 성소에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이 레위인의 제사장직으로 보장된다면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바꾸신다면, 이 율법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는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 예수를 두고 말합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 출신이십니다. 모세는 이 지파에 대해 제사장 직무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 세워진다면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사람의 혈통 규정이라는 율법에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끝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부름을 받으십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비할 데 없이 증언하십니다. 너는 - 다른 누구도 아닌 -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직에 관한 모세의 해당 계명은 그 약함과 무익함 때문에 무효로 선언됩니다. 이 율법은 온전함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 이 새로운 제사장을 통해 - 더 나은 소망이 들어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는 이제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분이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자리와 직무에서 예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인, 그렇습니다, 그 보장과 담보가 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레위인의 제사장직에서는 한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언젠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의 제사장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넘겨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무는 결코 중단되거나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와**

경배 가운데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분은 언제나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그들을 위해 나서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를 합당하게 대변하실 수 있는 분. 그분처럼 그토록 거룩하고, 그토록 죄 없고, 그토록 흠 없으신 분. 죄인들에게서 구별되어 이제 하늘들보다 높아지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 이전의 모든 대제사장처럼 먼저 자기 죄를 위해, 그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을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리고 죽는 사람들을! 율법이 주어진 뒤에야 온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웁니다. 그분은 이 섬김을 위해 온전해지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심을 통해. 영원토록.

8장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늘 성소에 앉으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의 오른편에. 그분은 참된 성소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한때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지으신 성소를.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는 자기 직무를 하려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계셨다면 그분은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의 섬김과 그들의 장막 성소는 하늘의 실재를 본뜬 것입니다. **땅의 제의 전체와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이 장막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산에서 내가 네게 보여 준 대로 모든 것을 만들도록 삼가라”.

새 언약

우리 대제사장의 섬김은 얼마나 뛰어난지요! 게다가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언약은 훨씬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첫째 율법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결코 둘째 언약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31장에서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다를 것이다. 너희는 내 언약 안에서 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언약을 깨뜨린 이 어두운 날들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로 세울 새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나의 완전한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굳게 심을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다시 그들이 아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이웃에게 우리 하나님이신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에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참으로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나는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므로, 첫째 언약은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아지는 것은 쇠합니다. 그것은 곧 영원히 사라집니다.

영원하신 분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선물로 주실 때, 그것은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놀라운 일입니다.

9장

첫째 언약, 곧 옛 언약의 예배에 대한 세부 사항

첫째 언약에는 땅의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장막 성소는, 나중에는 성전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장막의 첫째 부분에는 일곱 가지 등잔대와 진설병을 놓은 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소였습니다. 앞쪽, 곧 첫째 장막이었습니다. 둘째 장막, 곧 둘째 휘장 뒤의 둘째 부분은 지성소라고 불립니다. 거룩한 것 가운데 거룩한 곳입니다. 그 바로 앞에 금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 온통 금으로 입힌 궤였습니다. 그 안에는 광야 여정 때의 하늘 양식인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언약의 율법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궤 위 양쪽 끝에는 영광의 그룹들, 곧 궤의 덮개를 내려다보는 금으로 된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덮개는 속죄소라고도 불립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그러므로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막 성소가 이렇게 꾸며지고 나뉘어 있으므로, 제사장은 날마다 첫째 부분에 들어가 자기 직무를 합니다. 둘째 부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번. 그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피를 그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드립니다. 이로써 성령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첫째 부분이 직접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지 않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 있지도 않고 알려져 있지도 않다는 것을. 그러므로 이 모든 직무가 행해지는 시대는 영원한 구원과 용서에 관해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모든 예물과 제물은 양심의 짐을 덜어 줄 수**

없고, 하물며 제사 드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씻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서, 마음을 온전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하고 깨끗해진, 아니 자유로워진 양심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새 제사장, 하늘 성소에서 이루신 영원한 속량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들의 대제사장. 그분의 섬김은 온전함을 이룹니다. 미리 말씀되고 예고된 대로. 그분은 더 크고, 아니 완전한 성소를 위해 오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땅의 성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도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의 피, 그분 자신의 생명이 영원한 속량을 이룬 뒤에, 그분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흘리신 피의 능력과 영원한 가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피와 생명은 모든 면에서 동물의 피와 생명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무한히 더 값지며,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땅의 성소의 대제사장처럼 성소에서 다시 나오지 않으십니다. 다시 나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원하고 완전한 속량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되풀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죽은 사람을 만진 이들에게 물과 함께 뿌리던 암송아지의 재가 겉으로 거룩하게 한다면 -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참된 거룩함과 헌신을 이루겠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과 인도로 자원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 흠이나 책잡힐 것 없이. 그분의 피는 동물 제물의 피처럼 겉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죽고 쓸모없는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롭고 깨끗해진 양심으로 여러분은 마침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유언과 기업, 그리고 피로 말미암은 정결

그분은 하나님과 맺는 새로운, 둘째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첫째 언약 아래에서 지은 범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분을 통해,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약은 제물의 죽음이 일어난 뒤에야 효력을 냅니다. 제물의 죽음과 피가 없으면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곧 옛 언약도 피로 세워졌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언약의 모든 계명을 낭독한 뒤에, 그는 제물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함께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이 전하는 대로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제 지켜야 할 언약의 피다.”** 그러나 율법책과 백성만 뿌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장막 성소와 제사 기구들도, 아니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율법 자체가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옛 언약 안에서는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용서도 정결도 없습니다.**

단번에 드러지고 – 단번에 들어가셨다: 다 이루어졌다

하늘 성소를 본뜬 장막이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했던 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에는 훨씬 더 나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세운 땅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은 자신을 거둬들여 드리려고 그곳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 아래의 대제사장은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기 피가 아니라 동물 제물의 피를 가지고 거둬들여옵니다. 이 제사장과 제사의 질서를 따랐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단 한 번 땅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시대들이 완성될 때, 옛것이 끝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원하여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완전한 제물로서, 죄 문제를 단번에, 최종적으로 해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갈라놓고 피조물을 더럽히는 죄를 돌이킬 수 없게 치워 버리시려고. 그것도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도록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단 한 번, 되돌릴 수 없게.

어떤 사람도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단 한 번, 메시아께서는 단번에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자기 몸에 지시려고. 그 죄를 자기 안에 받아들이시고 죽음으로 가져가셔서,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워 버리시려고. 죄를 없애신 일은, 그분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로, 죽음 속으로 가지고 올라가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백성의 죄를 짊어진 숫염소가 광야로, 죽음의 땅으로 보내졌던 것처럼. 그분은 죄를 치우시고, 지우시고, 없애셨습니다.

큰 속죄일에 백성은 대제사장이 장막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속죄와 용서를 받아들이셨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도 하늘 성소에서 아직 단 한 번 더 나오실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 다시 들어가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나오셔서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하늘 성소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들이시려는 것입니다.**

10장

그때 제사들의 연약함과 메시아의 자기희생

제사 규정을 담은 율법과 장막 성소의 건축 지침은 더 큰 것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곧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온 온전한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큰 속죄일에 거듭 드리는 희생 제물은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날 온 백성이 용서를 기대하며 장막 성소로 나옵니다. 그곳에 용서와 온전함이 있었다면, 제사 직무 전체가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과 제사장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큰 속죄일에도 - 그리고 다른 어떤 제사에서든 - **염소와 황소의 피는 결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속죄일은 그 제사의식으로 거듭 죄를 기억나게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정결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1년 동안의 양심의 평안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가리키시며 그 말씀이 그분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동물 제물과 소제를 사실 한 번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제게 몸을 주셨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뜻을 이루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두루마리에 저에 대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제사 규정을 담은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나중에 온 것이며, 새롭고 훨씬 더 나은 것을 알립니다.

그분이 “주께서는 모든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아니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그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드러지는데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신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뜻을 이루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첫째 언약과 그 제사 직무를 폐하시고, 둘째의,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메시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섬기도록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러진 예수님의 몸의 제사로 말미암아.

요약: 새롭고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포괄적이고 영원한 구원

옛 언약의 제사장은 모두 날마다 서서 자기 직무를 합니다. 그는 같은 제물을 거듭 드리지만, 그 제물은 결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물로 바쳐진 동물은 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죄 없으신 분이. 그분의 제사는 **모든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되풀이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앞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그분 아들의 자발적이고 비할 데 없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거기 보좌 곁에서 그분은 그분의 모든 원수가 그분께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원수는 많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그분은 우리 - 믿는 우리 - 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그분의 목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던 그 모습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셔서, 그분의 성소에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우리를.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옛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증언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세울 언약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용서받았다.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다시는 그것을 너희에게 들추거나 너희에게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용서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시고 확증하셨다면, 죄를 위한 다른 제물은 결코 다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 직무 전체는 끝났고, 그래서 불필요해졌으며, 아니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사는 삶

이제 큰 목표에 이르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요 보좌가 있는 곳인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가장 안쪽의 하늘 성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직 몸으로는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는 없던 **새로운 길로**. 그 길은 살아 있습니다. 그 길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이 가득한 임재 안으로. 이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길을 열어 주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땅의 성소에서 들어가는 길을 막던 휘장을 지나서. 그래서 휘장은 찢어져야 했습니다. 살아 계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던 - 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시는 동안 아직 찢어지지 않은 휘장과 같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이 비로소 길을 열었습니다. 그로써 옛 제사장 제도와 제사 제도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우리의** 큰 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아직 겪는 모든 약함과 잘못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하늘 성소에서 확신 있게 기도하고, 경배하고, 쉬고,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러니 이제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의 보좌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찾으십니다. 오직 믿음만이 주는 온전한 확신 가운데. 우리 마음은 그분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양심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맑은 물로도 우리는 - 물론 비유적인 의미에서 - 죄의 더러움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웃 앞에서 고백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적대 속에서도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굳게 붙드는 것 말고? **메시아 자신이신 소망,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신 소망.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가진 것이 언젠가 참되고 눈에 보이게 되리라는 소망.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분만큼 신실한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돌봄 가운데 서로를 살핍시다. 감시하려고가 아니라. 서로에게 동기를 주려고. 사랑과 감사로 선을 행하도록. 우리 이웃을 격려하도록. 거들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경배합시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아예 그만두었고, 지쳐서, 믿음과 소망까지 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서로 먼저 나서서 교제하도록, 소망 가운데 있도록 격려합시다. **우리 주 예수와 하나님의 큰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옛 언약과 옛 제사 제도로 돌아감과 그 결과

믿음과 소망을 의식적으로, 고의로 버리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는 한때 진리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다시 내던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때 예수의 제사를 알았다가 다시 그것을 버린다면 - 그에게는 기댈 다른 제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사가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것만 남습니다. 옛 제사 제도는 그의 양심을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원수들에게 닥칠, 막을 수 없는 심판의 불을 기다리는 것만 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버린 사람도 증언에 따라 긍휼 없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 마치 쓰레기인 것처럼 - 짓밟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새롭고 영원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한때 그에게 이 은혜를 가져다주고 그것에 대해 그를 깨우쳐 준 성령을,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일어난 가장 나쁜 일인 것처럼 이제 모욕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말한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과 보응은 내게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알고 믿었으면서도, 자기 죄를 안고, 메시아와 그분의 제사를 거부한 채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도 영원하신 분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아주 확실합니다. 죽음.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 모든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의 결단과 기꺼이 고난받던 마음을 떠올리며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 왔는지 보십시오. 처음에, 오래전에 여러분이 은혜의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남달리 많은 싸움과 고난을 겪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섰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말로 여러분을 모욕했고, 여러분을 세상의 찌꺼기처럼 다루고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모든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직접 닥치지 않았을 때에도, 여러분은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 곁에 신실하게 섰습니다. 믿음 때문에 갇힌 사람들을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도왔습니다. 여러분은 재산을 빼앗기는 것까지 기쁨으로 견뎌왔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훨씬 더 낮고, 무엇보다 영원히 남는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확신과 신뢰와 소망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공개적으로 메시아 예수 편에 서십시오! **큰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분을 따르기도 하십시오! 그 길에 머무십시오 -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선지자 하박국에 말하듯이, 그때까지는 이제 아주 잠깐입니다. 오실 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 영원히 모든 고난을 끝내실 것입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까지 아직 오지 않으신 데에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그가 뒤로 물러나 믿음을 내던지면, 나는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믿음의 목표를 포기하고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니다 -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11장

믿음으로 살기 -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기

믿음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믿음은 굳은 확신,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 - 그리고 올 것 - 을 말하자면 앞당겨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에게 미래는 이미 실현된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증, 확신입니다. 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것을 저는 우리 조상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용기를 주는 예들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들 안에서 믿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려워졌을 때에도 그 믿음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상황을 어렵고 도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인류 역사의 처음에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동물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의 형 가인의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자란 열매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아벨은 의롭고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 아주 오래전 일인데도 -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를 건드리는 메시지를 지닙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용서와, 우리를 위한 제물을 통한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설명했듯이, 그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크게 기뻐하셨고 그를 곁에 두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 그와 같은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그분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진실하게, 끈질기게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

노아는 하나님께 큰 배, 곧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른 땅 위에. 가까운 곳에 바다는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그는 무엇이 닥쳐올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가장 대담한 상상으로도 그는 그것을 그려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동시에 그는 - 순종하여 방주를 지음으로써 -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불경건을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기업을 받게 될 곳을 향해.

믿음으로 그는 기업으로 약속받은 땅을 떠돌았습니다. 낯선 지역에서 나그네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이 받은 같은 약속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처럼 낯선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단단하고 영원한 기초가 있는 도성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도성을.

사라

오직 믿음으로만 사라는 이미 너무 늙었는데도 아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녀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언제나 이루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그 역시 너무 늙은 아브라함에게서는 더 이상 아이가 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족장들

이 족장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약속이 주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업을 말하자면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유목 생활은 그들이 시민권 없이 그 땅에 사는 나그네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아니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들이 떠나온 곳이 아닙니다. 그곳으로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나그네로서 그들은 더 멀리 보았습니다.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세 족장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십니다. **그분께로 그들은 믿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의 본향에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영원한 집을.**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약속을 이어 갈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손이 보장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일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자신이 멈추셨지만, 그것은 마치 그가 그 일을 실제로 행한 것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아들을 받듯이 그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올 일들을 바라보며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요셉은 죽을 자리에서 믿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를 떠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자기 유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서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들의 아이를 석 달 넘게 숨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두고 특별한 계획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갓 태어난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른이 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남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그야말로 거부했습니다. 그는 편을 바꾸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그는 그들의 치욕과 고난을 함께 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바로의 궁정에서 누리는 잠시뿐이고 덧없는 죄의 즐거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치욕을 - 오늘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한다면 -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앞을, 가나안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을 때 바로의 분노와 추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이 해방을 경험하리라는 기대 속에 굳게 섰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 꼬박 40년을 황량한 땅에서 보냈을 때에도. 그는 믿었고, 보이지 않는 분이신 하나님을 마치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왔을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 모든 말이가 죽음의 천사에게서 보호받도록.

믿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갈라진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마른 땅을 지나듯이. 그들을 뒤쫓던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져 내리는 물결 속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처음 만난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레 동안 성 주위를 행진한 뒤에.

라합

이 성의 성벽 안에 살던 기생 라합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 안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극도의 위험 속에서 숨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아무도 그들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는지. 모든 불의에 맞서 의를 행했는지. 약속을 받았는지. 사자들을 이겼는지. 불을 켜는지. 칼의 추격을 피했는지. 그리고 완전히 약한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었는지. 싸움과 전쟁에서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공격해 오는 무리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부활로 그들의 죽은 이들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풀려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더 나은 부활 -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 - 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결박되고 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이들은 돌에 맞고, 톱으로 켜지고, 목 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걸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큰 궁핍을 겪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에겐 그들은 아무 가치도, 의미도, 명성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속을 헤맸습니다. 동굴과 땅굴에 숨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름을 든 모든 사람,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이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것을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상속하고 거기에 속하도록. **그러므로 이제 그들과 우리가 함께 목표에 이르게 됩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모두 이제 함께, 그때 약속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뼤기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 새 도성이 있는 새 땅을.

12장

영적인 마라톤

경기장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과 순교자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본보기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보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 세상에 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바통을 넘겨받으시다. 계속 달립시다. 방해가 되는 것을 놓아 버리고 던져 버리십시오.** 우리를 늦추는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짐은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탄 데 정신 팔게 하는 것과 유혹은 무시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를 그토록 쉽게 엎어매고 비틀거리게 하는 죄도. 포기는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왼쪽도 오른쪽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만. 그분이 가장 크십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이들과 믿음의 영웅들의 맨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달리셨습니다.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믿음을 일으키셨고, 우리를 목표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아무것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끔찍한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분 앞에 놓인 큰 기쁨, 곧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실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의 고난으로 우리, 많은 아들과 딸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기쁨을.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퍼붓는 이 거센 반대와 저항을 견디셔야 했던 그분을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런데도 그분은 목표에 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본보기라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피곤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항과 차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은 아직 예수처럼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고, 저항에 맞서 견딘 적이 없습니다. 메시아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죄에 맞서서. 여러분은 아들과 딸인 여러분에게 하시는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이, 주께서 너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 그것을 복으로 맞아들여라. 주께서 때로 너를 엄하게 다루셔야 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과 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무 꾸지람도 훈육도 겪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아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길렀습니다. 필요하다면 엄하게. 우리는 그들에게도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고 그분의 훈육을 받아들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영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섬기는 모든 천사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훈육은 그분께 중요합니다. 그분이 그것을 돌보십니다. 그 일을 위해 그분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손길에 마음으로 “예” 합니다. 때로 힘들다 해도. 그러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들의 인간적이고 실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우리를 기르고 별했습니다. 겨우 몇 해 동안만. 하나님은 우리가 목표에 이를 때까지 흠 없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영적으로 어린 시절에만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 믿음의 길을 걸어온 뒤에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점점 더 그분을 닮도록.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신적인 성품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징계는 미래를 위한 준비이지, 결코 과거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런 훈육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는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슬픔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막을 수 없이 자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훈육에서 달아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그분의 손에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참을성 있게 단련받으면, 우리는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쪽으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해도.

이사야 3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다리를 저는 사람이 고침을 받기는커녕, 지치고 겁먹은 사람들이 길에서 벗어나고 말 것입니다.

함께 뭉치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서로 간의 평화를 위해 단호히 싸우십시오. 거룩함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거리를 둬으로써.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지 않으면, 그 큰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살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면서 자기 구원과 생명을 자기 자신과 자기 행위에 달려 있게 하지 않도록. 또는 율법, 곧 옛 언약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향한 쓴 마음과 악의라는 독한 뿌리가 돌아나지 않도록 살피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속에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자라면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 그들을 독으로 몰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혼인을 깨뜨리거나 여자들을 유혹하는 음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언제나 자기 배우자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조차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긴 에서처럼. 얼마 뒤에 그는 자기가 얼마나 경솔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써 몸부림쳤지만, 그는 자기 행동을 돌이키지도, 참으로 마음을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가치가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대로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를 깨달으십시오.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나아온 곳은, 그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시작된 옛 언약이 아닙니다. 손댈 수 없었던 눈에 보이는 산, 시내산이 아닙니다.

- 그 산 위에는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 큰 구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 어둠과 흑암이 산을 덮었습니다.
- 그 주위로 무시무시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 그곳에서는 큰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 그리고 크고 또렷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더는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기만 하면 죽여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금송아지를 섬긴 죄 뒤에 시내산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조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진노가 두려워 떨고 있다.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압도적인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혀 새로운 것, 넓은 지평이 열렸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실재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 크고 즐겁고 성대한 축제의 모임 가운데 있는 수만의 하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구속받은 모든 이 가운데 만아들들의 모임에.
-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초대하신 하나님 자신, 모든 사람의 재판장께.
- 죽어서 이미 하늘의 목표에 이른 의인들에게.
- 메시아 예수께. 새 언약의 중보자께.
- 그리고 그분의 피에. 이 피는 보복을 부르짖던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분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때 시내산과 광야에서 땅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책임을 추궁당할 것입니다.

이 음성이 그때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에 그분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땅을 흔들 것이다.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이 흔들림으로 모든 피조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동 가운데, 흔들림을

견디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남는 나라를 받습니다.

이 일을 두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만한 경외와 공경으로.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미 신명기 4:24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소멸하는 불과 같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소멸하는 불은 우리를 멸하려 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영적 제사를 받으려 합니다.

13장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을 살아 내십시오. 그것을 손님 대접으로 보여 주십시오. 서로 넉넉하게 초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 알지 못하는 사이에 -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천사들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를 섬기며 일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열지 않고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천사들의 방문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간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십시오**. 그것도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옥에서 학대받고 괴롭힘을 당하여 그것을 몸으로 겪어야 하는 사람들도 기억하십시오.

혼인 언약과 결혼 생활은 존중받고 귀히 여겨져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삶의 모든 면에서. 부부의 침소와 성의 기쁨은 오직 부부에게 속합니다. 성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요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인 언약을 굳게 하기 위해. 다른 여자나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자기의 혼인 언약이나 다른 사람의 혼인 언약을 깨뜨리는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 혹은 혼인 언약 없이 아무렇게나 성관계를 허락하는 사람들 - 그들을 하나님은 눈감아 주지 않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살고 행동하십시오.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덧없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궁핍과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한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말씀,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준 사람들의 헌신과 믿음과 신실함에서 격려를 받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생애가 끝날 때까지 믿음 안에

머물렀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본을 따르십시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전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서. **그분은 어제, 곧 그분의 땅 위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리고 구원 역사의 목표에 이르는 영원까지도, 동일하게 신실하시고 참되신 주님이십니다.**

새로운 예배

여러 가지 낯선 가르침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메시아를 따르는 삶에서 휩쓸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옛 언약의 본질에 속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쓸모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이고 더 나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제단에서 먹습니다. 우리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메시아의 은혜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먹고 누립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 특권을 알지 못합니다 - 그들에게는 그것을 누릴 권리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피를 성소로 가져가는 속죄제의 제물 짐승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집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을 때.

그러므로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첫째 언약의 옛 제도를 완전히 뒤로합시다. 그것이 치욕을 가져오고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한다 해도. 그분의 치욕을 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앞을, 아니 위를 바라봅시다. 우리에게는 땅 위 어디에도 우리가 집으로 삼을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며,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향해 지나가는 길에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의 위대한 왕의 도성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영적 제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혼자서, 그리고 함께. 눈에 보이는 제단 위의 동물 제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말과 노래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 백성의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말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물질의 제사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 그것으로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거나 재정적으로 돕습니다. 여러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 시간, 돈, 힘 - 그리고 어쩌면 무언가를 포기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런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찬양과 감사의 제사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을 끊임없이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저 여러분을 위험에서 지켜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굳건하게 머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이 사명을 얼마나 잘, 얼마나 열심히 수행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섬김을 귀히 여기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한숨 쉬며, 혹은 순전히 의무감으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행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는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곧 다시 여러분 곁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요약: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수치스러운 십자가 죽음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새롭고 더 나은, 아니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분은 그분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을 그분이 머지않아 친히 죽음에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때 그분은 목자가 자기 양들을 이끌듯이 그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썩가에서 그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이끌어 내셨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 우리를 선한 일로 움직이시고 갖추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할 데 없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분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있습니다.

제 편지의 권면을 참고 받아 주십시오! 저는 몇 마디 말로, 할 수 있는 한 짧게 썼습니다. 훨씬 더 많이 쓸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곧 여러분에게 가서 마침내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 지도자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빠짐없이. 이탈리아의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우리는 함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아멘.

이런 소책자를 더 보시려면 다음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주십시오:
www.hans-joerg-ronsdorf.de